

## 타자성의 담론으로 본 F.O.A 건축 공간생성 원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inciple of F.O.A Construction Space Creation Viewed from the Discussion of Otherness

이지연\* / Lee, Ji-Yeo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he otherness philosophy reveals itself in the principle of F.O.A construction space creation. The traditional philosophy of totality is self-centered and thoughts are based on the subject. It couldn't escape from the world associated with the self, and has subordinated the other to the main body. But the philosophy of otherness transcends the subject, to the open, creative way of thinking which acknowledges deconstruction, decentralization, and non-hierarchy. This is very similar to contemporary architecture, which pursuits change, and also to the current state of society. In construction by the construction group F.O.A, which is doing notable activity this generation, there is an attempt to transcend the fixed subject which is seen in the otherness discussion, and realize recategorization by overcoming the boundaries of subject and object. First, by the realization of landscape architecture using a topographical folding technique, boundaries of the subject and object are demolished in the relationship of the landscape construction, and recategorization. Second, by breaking up the meaning of the surface which is a visual and physical boundary for both the internal and external, recategorization is being done. Third, by making the boundary between the interior and exterior indistinct, cognitive threshold is dissolv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 and object is being recategorization. In conclusion, we can see that the many recategorization phenomenons that are happening in the F.O.A construction show the otherness that escapes from the conventional and stationary relationship, and recognizes each other at the same time, forming new relationships.

키워드 : 타자성, 재유형화, 랜드스케이프건축, 인식적경계

Keywords : Otherness, Recategorization, Landscape architecture, Boundary of cognitive

## 1. 서론

## 1.1. 연구 목적 및 의의

복잡계로 대변되는 현대사회는 경직되고 고정된 서구 이성 중심주의 사고로부터 만들어진 공식화되고 정형화된 틀로부터의 해체를 외치며 다양한 담론(談論)들이 제기되고 또한 주목 받고 있다. 전체성 철학의 자아 중심적이고 주체 중심적인 사고는 자신이 속한 세계의 중심관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타자를 주체의 동일자로서 종속시켜 버렸다. 이에 반하여 오늘날 해체 주의자들이나 포스트구조주의자 들은 주체의 위력이 상실되고 해체되었음을 이야기하며 주체의 죽음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주체의 해체와 탈중심화는 고전철학으로부터 내려 온 전체성 철학의 자아 중심적 사고를 되돌아보는데 큰 쟁점으로 부

각된 타자성(otherness)이라는 새로운 사유의 틀 속에서 재유형화(recatagorization) 되고 있다. 이 시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건축그룹 F.O.A<sup>1)</sup> 건축에는 타자성의 담론에서 보여 지는 고정정적 주체를 초월하고 주체와 객체의 경계를 허물어 재유형화 하려는 시도가 담겨져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타자성의 담론이 어떤 유형으로 F.O.A 건축 공간 생성 원리로써 드러나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또한 타자성을 통해 건축에 드러낼 수 있는 특수성을 찾아보고 건축에 있어서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재정리해 보는 것은 근대성의 탈피와 더불어 고착화 되지 않는 새로운 건축을 향해 가기 위한 방법의 한 가지가 될 것이다.

1)Foreign Office Architects Ltd. 건축가 Alejandro Zaera Polo와 Farshid Moussavi를 포함한 건축그룹으로 1995년 런던에 사무실을 오픈하여 동시대 건축과 도시계획 등의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Address : 55 Curtain Road, London EC2A 3PT, UK

\* 정회원,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박사수료

## 1.2. 연구 사례 및 범위

이론적 고찰로써 타자성의 담론이 형성된 배경을 살펴보고 현대 철학자들의 타자적 사유체계를 바탕으로 요약 분석하여 건축에 어떤 유형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F.O.A 건축사례 분석을 통하여 고찰한다. 주체와 동일하지 않은 타자의 존재와 차이를 인정하고 타자에 대한 책임윤리를 강조한 엠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1906~1995)와 타자의 잠재성을 통해 무한 확장된 세계관으로부터 주체를 재설정 하는 질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sup>2)</sup>의 타자성 담론을 주된 사유의 틀로 사용하며, F.O.A 건축을 통해 표출되는 타자성에 관한 해석을 건축되어진 그룹의 작품 중에서 랜드스케이프 건축과 일부 물리적, 인식적 경계공간을 통해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재해석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하여 분석한다.

## 2. 철학적 사유로서의 타자성 담론

### 2.1. 타자성의 개념

타자(他者)는 자기가 '아닌' 존재이며 나와 '다른' 존재로서 사전적 의미는 '자기 외의 다른 사람'으로 타인의 개념에 가까우며 철학적 의미는 '자기 동일성을 나타내는 동(同), 또는 성질적 통일로서의 일자(一者)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이것은 '나와 너'에서 '주체와 객체'로 양분화 되는 사유를 거쳐 오면서 자아의 개념에 반하는 모든 이분법적인 축 속의 상대자 역할을 통칭하는 것으로 대변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분법적인 요소를 통해 자아와 대등한 관계를 이루어 오던 타자의 의미는 근대에 들어서 그 위치가 반감되었다. 근대 철학은 '나'의 관점에서, 즉 주체의 담론을 중심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그 동일성의 철학에 사유의 중심을 두고 있었고, 그 범주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을 '차이' 또는 '타자'라는 이름으로 배제해 왔기 때문이다.<sup>3)</sup> 두 존재 또는 그이상의 존재가 자기 동일성으로 고착화되어 자기의 자리를 확고히 지키게 되면 진정한 창조는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각 존재들 간에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고착화 된 동일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각 존재들 자체를 타자화(他者化)해 나가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할 때 비로소 타자를 통해 주체성이 재정립된다.

### 2.2. 엠마누엘 레비나스의 인정과 타자

서양의 자아 중심적 사고에 대하여 심각하게 비판을 했던 레비나스는 전체성의 철학에 대항하여 어떤 무엇과도 환원될

수 없는 개인의 인격적 가치와 타자에 대한 책임을 보여주는 평화의 철학을 구축하려 하는데,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하여 존경심을 가지고 나와 다른 존재와 함께해야한다고 말하며 주체성이란 '타인을 받아들임' 또는 '타인을 대신한 삶' 등으로 정의한다.<sup>4)</sup> 레비나스에 의하면 타자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타자의 신비로운 영향력을 인정함으로써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외재성으로 타자를 규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각각의 주체와 객체의 존재감은 서로에게 종속되지 않는 것으로, 전원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절대적 외재성으로 여기며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다. 레비나스는 자아를 타자와 다른 것으로 혹은 대립되는 것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아를 타자와 분리시킨다.<sup>5)</sup> 동일시하거나 대립시키지 않는다는 것 즉, 분리시킨다는 것은 동등한 상태로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레비나스에 따르면 인간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타자와의 차이를 의식하게 되며 자아는 이러한 타자와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비로소 진정한 자아가 된다. 타자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것은 타자의 가면을 벗기지 않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것이라고 레비나스는 말한다.

### 2.3. 질 들뢰즈의 차이와 타자

들뢰즈는 차이와 반복(Difference and Repetition)에서 타자를 '가능한 세계의 표현(the expression of a possible world)'이라고 정의한다. 감싸고 함축된(implicated) 가능한 세계가 펼쳐지고 설명되면서 주름이 안으로 접히고(in-plicated), 밖으로 펼치는(ex-plicated) 겹주름 운동을 감싸는 존재가 타자이다. 따라서 들뢰즈의 타자는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키는 구체적인 타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타자들이 현실화하는 조건인 절대적이고 선형적 구조이다. 가능한 세계의 표현이자 선형적 구조인 타자 개념에서 주목할 점은 주름을 펼치는 것 보다 감싸는 것에, 구체적인 타자들의 지각보다 선형적 구조에 우선성이 놓인다는 것이다.<sup>6)</sup> 또한 어떤 대상에는 늘 가시화하지 않는 잠재적인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 잠재적 부분을 가리켜 '가능성, 배경, 언저리' 등으로 표현하며 이런 잠재적인 부분까지 통합하여 대상을 체험한다는 것은 타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한다.<sup>7)</sup>

들뢰즈는 전통 철학에서 말하는 초월적 즉 신적 존재자로서의 일자(一者)와 다자(多者)와의 관계를 결국 존재론적으로는 차이가 나지 않는 하나임을 말하며 '존재의 일의성(一意性)'을

2)1960년대 초부터 철학, 문학, 영화, 예술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저작들을 썼는데, 본 연구에서 사유의 기반으로 볼 타자에 대한 언급은 철학적 저술 시기 구분으로 보아 1969년 이후 정신분석학자 팰릭스 가타리의 공동 저술시기 이후의 내용이나 편지상 들뢰즈만을 표기하기로 함.  
3)옥유정·이동언, 타자성 극복을 위한 건축 리노베이션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6.10, p.550

4)시간과 타자, 엠마누엘 레비나스 저, 강영안 역, 문예출판사, 1996, p.7  
5)엠마누엘 레비나스-타자를 향한 욕망, 콜린데이비스 저, 김성호 역, 다산글방, 2001, p.84  
6)타자의 타자성과 그 담론적 전략들, 전병철 외,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4, pp.126-127  
7)G. Deleuze, 감각의논리-Logique du sens, paris: Ed. de Minuit, 1969, pp.354에서 "변두리에 있는 그런 대상이 현존한다는 앎과 느낌은 오로지 타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주장하는데, 존재의 일의성은 모든 사물이 서로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이 아니라 잠재성을 얼마나 포함하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또한 일자(一者)와 다자(多者)와의 복잡한 관계를 나타내는데 '다양체(multiple)'가 적합하며 다양체를 기반으로 다름으로써 오류에 빠지지 않고 더욱더 명확하게 일자와 다자와의 관계를 극복한다는 것이다.

### 3. F.O.A 건축에서의 타자성 드러내기

#### 3.1. F.O.A 건축개요

건축가그룹 F.O.A(Foreign Office Architects)는 공공건축과 개인 건축을 넘나들며 1995년부터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젊은 건축가그룹으로서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미국, 일본, 터키, 말레이시아, 한국 등 어느 한 국가에 치중되지 않는 진정한 Foreign Office임을 보여준다. 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건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는 삶에 뿌리를 둔 건축을 믿는다. 일상의 정수가 되는 부분, 환경과 문화적 삶의 결정적인 부분, 그리고 성장과 쇠퇴의 물질적 생애 과정으로서 말이다. 다양한 인풋의 추상화 과정을 통해 매끄럽게 물질적인 일관성을 확립하도록 하고 작업의 중요 부분을 구성하는 다양한 조각적, 연상적 형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일반적인 철학과 가치에 의존하여 시그니처 스타일을 전개시키기 보다는 특정한 상황에 꼭 맞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에코시스템으로 이해한다. 또한 점점 커져가는 지속가능성, 랜드스케이프,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축의 물리적이고 효과적인 분절과 분해할 수 없는 전체에 있어서의 본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건축적 표현을 탐색하는 건축 기술의 급격한 성장, 이러한 주제들과 우리 활동의 현실과 관련시켜 규명할 수 있는 기타 주제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건축적 표현을 찾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sup>8)</sup>

<표 1> F.O.A 대표작품연표, 2000년 이후 대표작

■ Completion			
프로젝트	이미지	공간적 특성	시기구분
돌널출판사 파주출판단지 Korea		벽과 바닥의 구분을 없애 판을 접어 올려 벽을 만들고 판을 펼쳐 바닥을 만드는 등의 폴딩 방식을 사용.	2001
Yokohama 국제 여객선터미널 Japan		지형학적 폴딩을 이용하여 건축과 땅의 유연한 접합을 시도하는 랜드스케이프 건축 실현.	2002
SE Coastal Park & Auditoriums Spain		모래언덕을 차용하여 지형구축. 인위적으로 완성된 지형도를 통한 복합적인 조경 창조.	2004

8)Special Architect F.O.A, 자료제공F.O.A, 건축문화 2007. 10, pp.40-42

MUNICIPAL 경찰본부, Spain		주변의 전원풍경 속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벽처럼 디자인. 내부 여러 실에 고른 채광을 하기 위하여 천장의 판 조작.	2004
Spanish Pavilion Expo 2005 Japan		상징적 컬러로 코드화된 6각형 그리드를 이용, 불규칙한 배열의 외피형성과 타이포그래피 구축. 내부의 다양한 유선형 실들을 직사각의 외부로 감싼 형상.	2005
CARABANCHEL Social Housing Spain		파동형 천공판을 이용한 폴딩 프레임설치. 동서향의 강한 일사로 부터 세대를 보호함과 동시에 각세대의 관습적 경계가 해체.	2006
Municipal Theatre & Auditorium Spain		캔틸레버처럼 튀어나온 매스는 대지가 들어올려져 벽을 이룬 형상으로 플라자와 공연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통로 격의 경계공간 형성.	2006
La Rioja Region Development Spain		아름답게 직선으로 뺨은 강가였던 낮은 지대의 대지에 웹서비스 연구소와 교육장, 농장 등 계획. 경관의 흐름에 맞추어 유형화.	2007

#### ■ Project planned to be Constructed

London Olympics 2012 and Lower Lea Valley Regeneration Msterplan, U.K.		올림픽 경기장과 공원,도로,운하, 조경 등 레아 밸리가 가지고있는 인프라 스트럭처를 모두 고려한 모든 장소를 한번에 건축.	2012
The Institute of Legal Medicine Spain		인체와 인체의 움직임을 생동감 넘치는 공간에 제한적 기법으로 묘사하기 위해 구체 사용.	TBC
New Shires Development U.K.		기존의 불투명한 백화점커튼월을 레이스 패턴의 이중구조로 투명하게 계획하여 도심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함.	2008
Residences for Artists and Researchers France.		정원과 거주구역을 한데 엮어 블록의 야외 환경과 파사드를 개방한 실내공간과의 경계를 흐리게 함.	2009
Ravensbourne, College of Design and Communication U.K.		자연의 모방이 아닌 추상적 패턴을 건축적으로 표현. 내부로 연결된 두 개의 아트리아 시스템을 이용하여 4개층을 구조화 시킴.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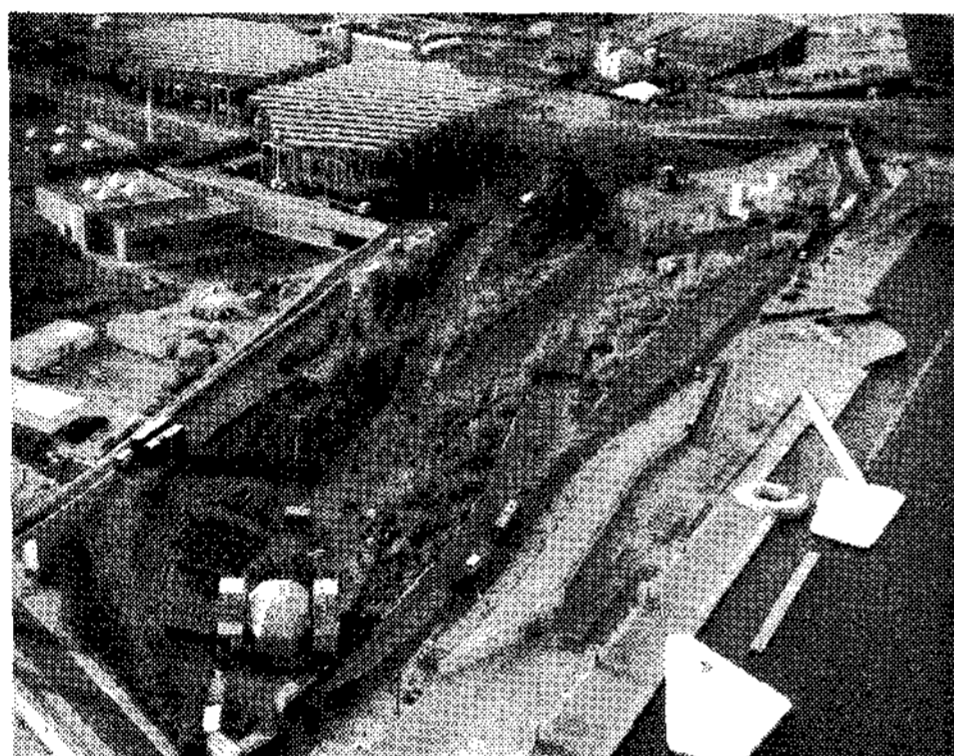
#### ■ Competition

Elizabeth House U.K.		런던 지역사회의 창조적 본질을 제공할 수 있는 도시의 조각품. 관찰 시점에 따라 다양한 보석의 형태로 표현.	2006
Torre Masaveu Spain.		지역의 경관과 어우러지도록 아스투리아의 풍경과 산악지의 미니어처 같이, 파도 모양 지형의 정원으로부터 세워진 유리막의 결정질을 지닌 타워.	TBC
World Business Center Korea.		자연 통풍과 태양열 수취를 최대화 하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밀폐되지 않은 개방감 있는 초고층의 외피시스템.	2006
Novarlis Campus Basel Swiss		캠퍼스와 도시의 복합화 방안으로 도심 공용 주차장과 공원을 함께 계획. 지하에 주차공간을 두고 판을 들어 올려 경관조성.	2003

### 3.2. 지형학적 폴딩을 이용한 랜드스케이프 건축 구현

18C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개념은 픽처레스크<sup>9)</sup>(picturesque)로 당대의 이상화 된 풍경을 구성하는 개념이었는데, 근대에 들어와서 전원적인 모습이나 목가적인 풍경을 표현하는 용어로 전락하였다가, 1980년대 이후 회화적 개념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와 함께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최근에는 경관 건축 또는 조경 건축 등의 용어로 사용된다. 이전의 랜드스케이프 건축에는 부분과 전체에 대한 사고가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랜드스케이프와 건축 요소들과 하나의 전체적인 구조체로 연합되지 않는다. 아래의 랜드스케이프 건축 사례에서 보면 F.O.A는 폴딩을 이용한 랜드스케이프 건축을 지형과의 인위적 복합성을 이용해 펼쳐놓음으로써 경관과 건축의 종속되지 않는 주체와 객체간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며 타자성을 드러내고 있다.

(1) SE Coastal Park & Auditoriums, Spain,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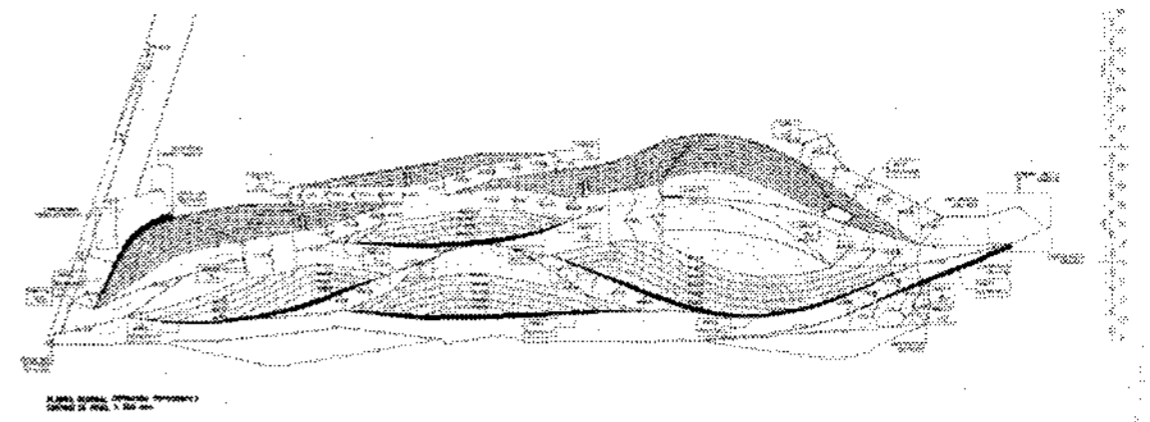
<그림 1> SE Coastal Park & Auditoriums, Spain

건축과 땅의 관습적인 개념, 고정되고 수평적이며 한정적인, 그리고 그것에 의존하지 않고 건축과 땅의 유연한 접합을 시도하는 랜드스케이프 건축을 F.O.A는 지형학적 폴딩(folding)을 이용하여 구현하고자 한다. 벽과 바닥의 구분을 없애 때로는 판을 접어 올려 벽을 만들고 때로는 판을 펴서 바닥을 만드는 등의 폴딩을 이용한 방법을 통해 구축된다.<sup>10)</sup>

바르셀로나 남동쪽 해안공원과 공연장을 계획했던 위의 프로젝트는 인위적으로 만든 지형도를 통해 복잡한 조경을 창조하는 것으로 이곳 해안지역에 자주 등장하는 '모래언덕'을 차용하였고 야외 공연장과 함께 여러 가지 액티비티(Activity)를 위한 공간구성이 주된 계획이다. 땅과 건축, 경관과 건축의 경계를 해체시키고 주체와 객체의 의미를 동일선상위로 끌어올려 탄력적 시너지 효과를 도모한다. 독립된 하나의 대상으로서의 오브제적인 건축과는 달리 주변 환경과 지형에 대한 건축적 접

9)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기에 영국에서 선보인 건축양식으로 영국 미학이론에서 회화성(繪畵性)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 말로 이탈리아어 피토레스코(pittoresco)에서 딴 프랑스어 피토레스크(pittoresque)의 파생어이며 영어로 원뜻은 '그림과 같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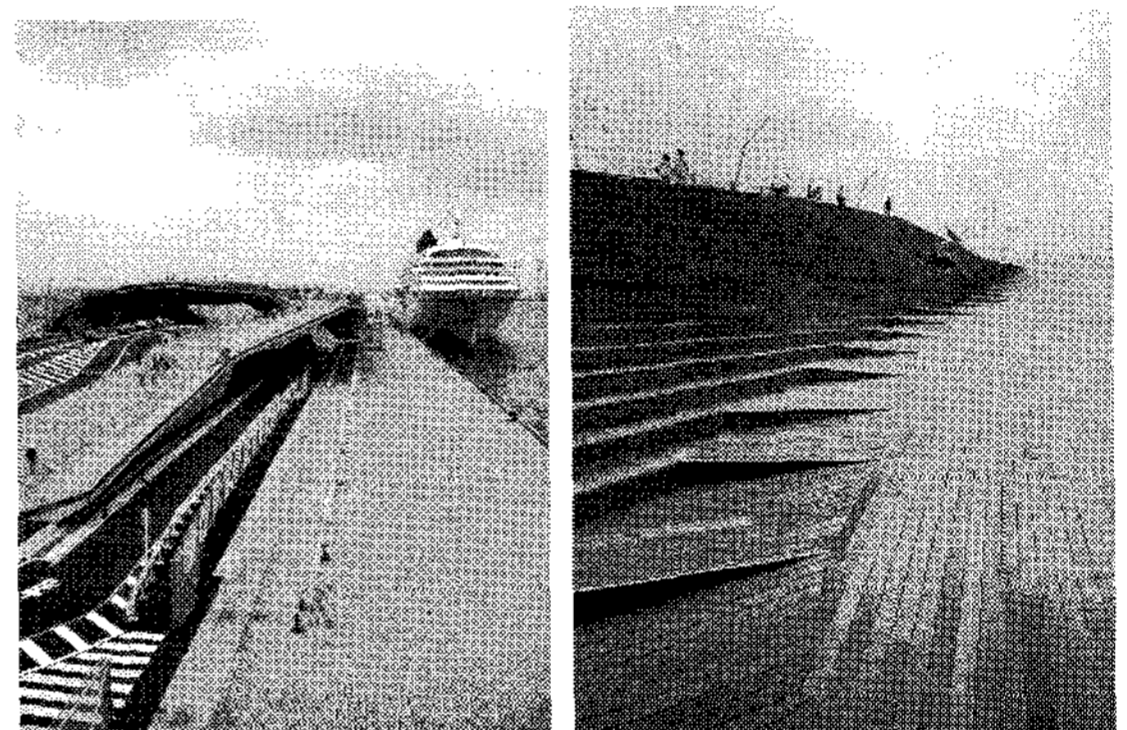
10)건축과 환경, 통권 264, 2006. 8, p.42



<그림 2> SE Coastal Park & Auditoriums 평면지형도

근으로서의 조경과 그 개념을 달리하는 내·외부 공간의 전환 장치로 랜드스케이프 건축이라는 전략적 사고방식을 통해 드러낸다. 랜드스케이프 건축에서의 판의 조작은 건축 공간 개념 변화의 수용에 그 배경이 있으며 균질 공간에서 이질 공간으로 되어지는 흐름으로서 이벤트 건축과 구성요소의 일체화로서 폴드(fold) 건축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진다.<sup>11)</sup>

(2) Yokohama 국제 여객선터미널, Japan, 2002



<그림 3> Yokohama 국제 여객선터미널, Japan

요코하마 여객선 터미널에서 건물의 피는 사람들의 이동통로이며 건축을 둘러싼 경관의 일부이다. 땅의 힘을 받아 물결처럼 굴곡된 단면을 보여주는 폴드(fold)구조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두 기능을 하는 경관과 건축의 유연한 접합을 시도한다. 수없이 많은 판들의 중첩으로 주름진 바닥 레벨을 만들어 구조적 강성을 높이는 동시에 수직 동선을 위한 별도의 장치 없이 하나의 판으로 이어져 수직과 수평 동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연속성과 유동성을 보인다. 랜드스케이프 개념은 문화적 장치로써 주변 환경을 배경으로, 건축을 독립적 오브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 속의 일부로써 작동하는 장치로 보는 것이다. 즉 랜드스케이프 건축은 물리적으로 사물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에 대한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사물과 사물의 공간을 관계 맺는 역할과 주변 상황과 위치하는 대지와 일체화되는 건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다.<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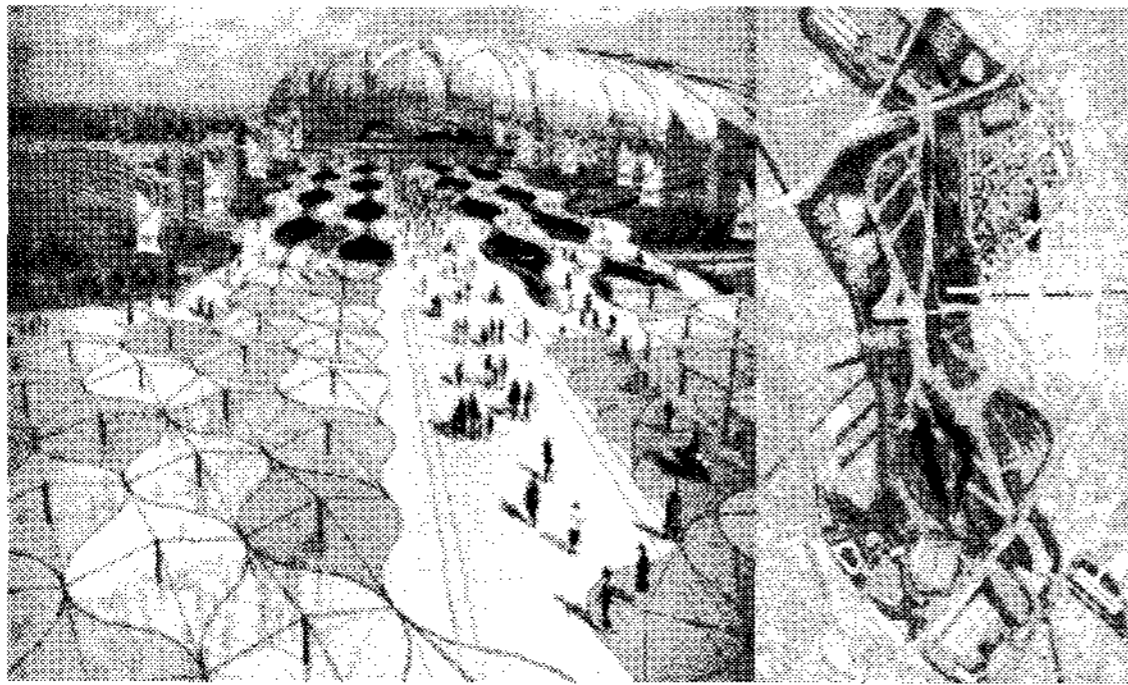
(3) London Olympics 2012 and Lower Lea Valley Regeneration Masterplan, U.K

건축이 진행 중인 런던 2012올림픽 공원은 템즈강을 가로질

11)육광교, 랜드스케이프 건축에 있어서 판의 조작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논, 2003, p.27

12)윤갑근·김기완, 랜드스케이프 건축개념의 재유형화에 관한 연구,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7.4, p.106

러 그리니치까지 뻗어있는 레아밸리(Lea Valley) 파크 내에 위치한다. 레아밸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로서의 자연 지형인 굽이쳐 흐르는 운하, 늪지대, 그리고 시원한 산책로 등을 올림픽 파크와 함께 계획, 레아밸리의 고유 자원을 보강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또한 올림픽 광장은 공원의 주요 구성요소이자 올림픽 경기장과 운하, 그리고 도로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매듭으로 설계되었는데 모든 장소를 한 번에 건축함으로써, 스타디움이 하나의 통합된 영역으로 자리함과 동시에 플랫폼 위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오브제' 건물이라는 고리타분한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게 되었다.<sup>13)</sup> 자연의 속성을 이용하여 풍경을 생성시키는 건축적 행위로서 주경기장과 부속 건물 그리고 그라운드까지 모든 장소를 한 번에 설계하여 오브제 건물이 아닌 통합된 영역으로써 전체가 하나로 소통되도록 하며 레아밸리를 가로지르는 운하와 늪지대, 조경 등을 공존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지형학적 폴딩을 이용하였다.



<그림 4> London Olympics 2012 and Lower Lea Valley Regeneration Msterplan, U.K

부분속의 전체라는 개념은 폴딩이나 카오스 등의 개념 그리고 무한의 개념 등과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주름(folding)의 개념은 궁극적으로 원자는 없으며 모든 사물을 그 안에 또 다른 사물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sup>14)</sup>하는 것으로 타자성을 내포하게 되며 타자와의 완전한 불연속을 통한 새로운 주체성 드러내기가 가능하다. 주체를 설명하기 위한 객체의 존재인지 객체를 설명하기 위한 주체의 존재인지 불분명한 규명 속에서 F.O.A의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Alejandro Zaera Polo)는 '비어있는 부분과 차 있는 부분의 전도'<sup>15)</sup>라고 말하며 이것은 관계의 역전을 통해 틀을 만들고 나머지 발전은 유연하게 남겨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비움의 방식은 시간에 따른 개발의 유연성을 획득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결국 이것은 후에 건축과 주변 환경을 종속적인 관계로 여기는 것을 거부하고 주변 환경을 건드리지 않고 보존 하려고 하는 랜드스케이프

13)건축과 환경, 통권 264호, 2006. 8, p.75

14)이정우, 접힘과 펼쳐짐-라이프니츠와 현대과학, 거름, 2000, p.141

15)Notes for a Topographic Survey, Rem Koolhaas, EL Croquis,m 53+79, 1998.

건축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게 된다.<sup>1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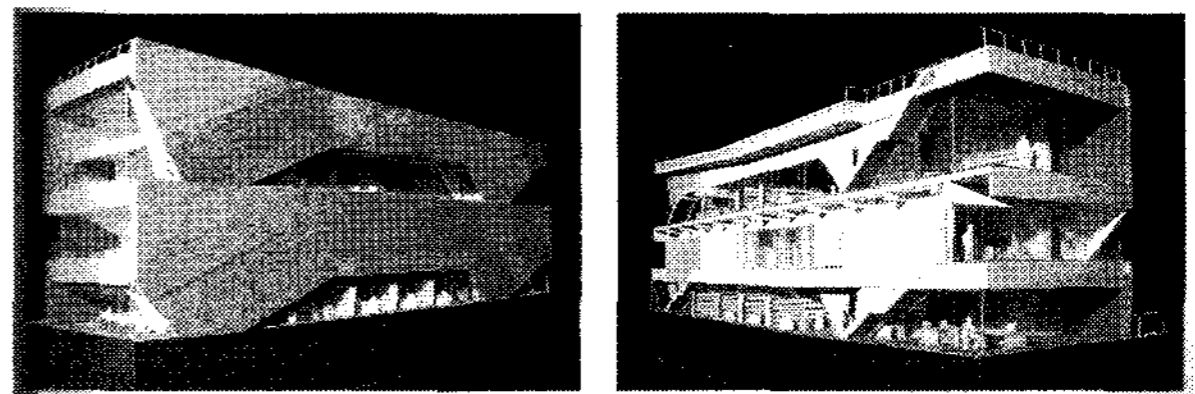
### 3.3. 내·외부의 물리적 및 인식적 경계 재설정

건축 공간에 있어 경계는 그 공간을 한정하는 것으로서 그 공간의 성격을 반영하며 서로 다른 공간 사이에서 관계 맺음의 결과로 나타난다. 즉, 건축에서의 경계는 두 영역 간에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적 관계로 정의되는 영역들의 집합으로 서로 상관관계 아래에서만 그 특성을 획득한다. 또한 경계는 공간의 내·외부를 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변형을 통한 상호관계를 조율함으로써 그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데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사용자들에 의해 경계 공간은 더욱 다양하고 복합적인 또 다른 공간의 경계를 생성하며 끊임없이 불확정적 위계의 공간을 재생산한다.<sup>17)</sup>

경계를 구분 짓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의 건축 내부 각 요소들 간의 경계와 도시와 건축 사이의 경계, 또는 건축물의 이미지 구분으로서 경계와 공간을 사용하는 행위 구분으로서의 경계, 그리고 시각적으로 확실한 구분을 갖게 되는 물리적인 경계와 경험적이고 선형적으로 구분되어지는 인식적 경계등 여러 가지 구분이 가능하다.

F.O.A 건축의 경계 공간 생성과정에서 타자성 드러내기는 내·외부 경계공간을 이분법적인 축으로 나누어 양분화하지 않고 모호한 경계공간이 가지는 다양한 인식적 잠재성을 통해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재해석하거나 서로에게 종속시키지 않는 각각의 독립적 외재성으로 차이를 인정하는 방법으로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타자화해 가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1) 들녘출판사 사옥, Korea, 2001



<그림 5> 들녘출판사 사옥,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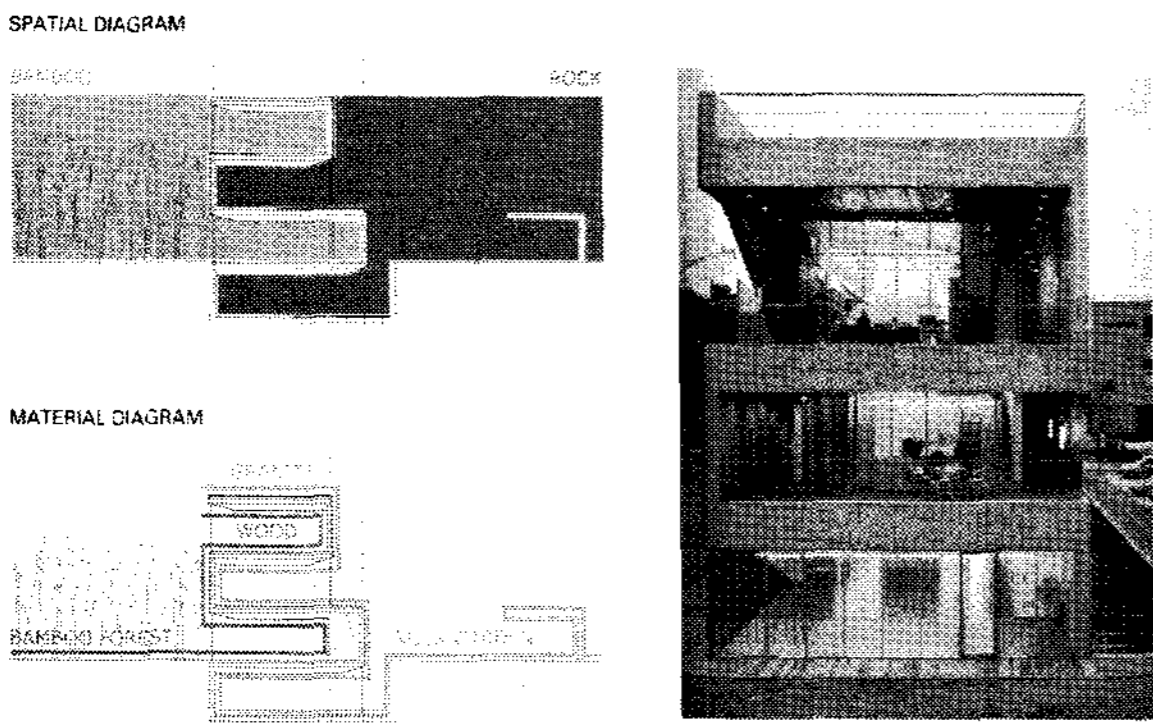
내·외부의 물리적 경계를 지형학적 폴딩으로써 재해석하려는 시도를 보여주는 들녘 출판사 사옥의 건축에서는 건물 내외부 형태 및 마감 재료에 폴딩을 이용하여 물리적 경계를 명확히 하되 이질적 재료의 물리적 확장성 수용을 통하여 서로에게 종속되지 않는 존재감을 통해 타자성을 드러낸다.

먼저 건물이 들어설 땅에 대한 해석으로 방향에 따른 두 가지의 이질적 재료를 읽어내는데, 남쪽의 대나무 숲이라는 자연

16)배우영, 랜드스케이프 건축에 나타난 경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4, pp.26-27

17)유정호·조한, 질 들뢰즈의 '생성 혹은 되기' 개념을 통한 현대건축의 경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7.10, p.365

과 북쪽의 인접 건물의 마감 재료인 콘크리트의 광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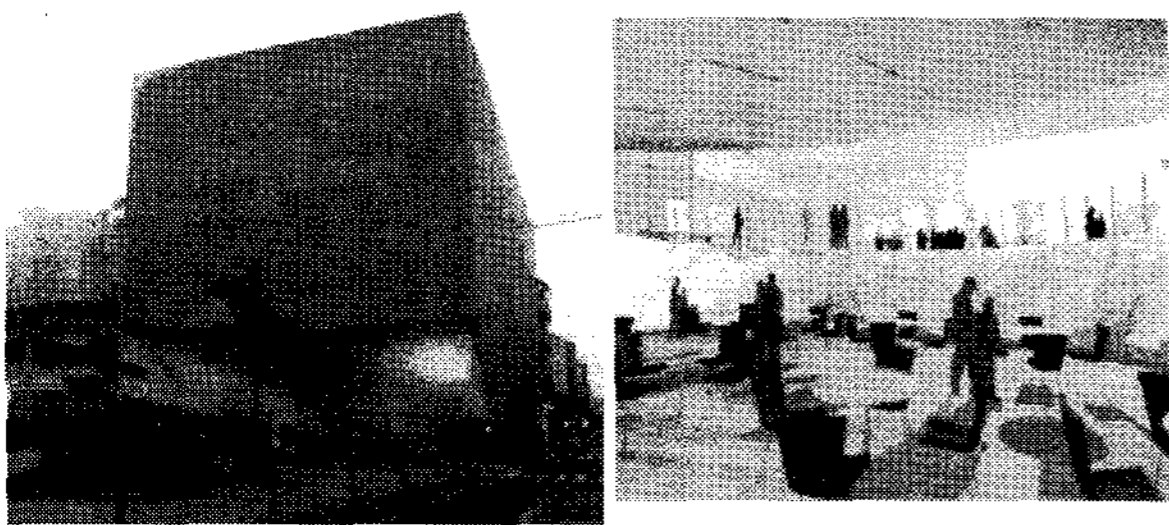


<그림 6> 들녘출판사 사옥 Spacial Diagram

이 두 가지 재료는 건물의 남측 외벽을 목재로 하고 내부로 말려들어 1·3층 내부 바닥과 북측 내부 벽면으로 이어지는 폴딩의 형태로 물리적 경계를 이루고, 건물의 북측 외벽은 노출 콘크리트로써 다시 내부로 말려들어 2층의 내부 바닥과 남측 내부 벽면으로 이어지는 폴딩의 형태로 물리적 경계를 재설정하게 되는데, 즉 건물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접혀진 스크린의 기하학에 의해 모든 바닥판은 교대로 정렬되며 이로 인해 건물의 단면을 가로질러 이동할 때 지속적으로 교차하는 경관과 마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sup>18)</sup>

(2) Municipal Theatre & Auditorium, Spain, 2006

스페인 남동부 지역의 주요 관광도시인 토레비아 지역의 인프라스트럭처 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구획된 플라자(Plaza)의 센터 블록 코너에 공연장이라는 문화공간을 계획함으로써 새로운 도시형 인프라스트럭처를 완성하고자 한 프로젝트이다.



<그림 7> Municipal Theatre & Auditorium, Spain

라임스톤이 입혀진 견고한 매스는 플라자를 장식하는 하나의 조각으로 인식되며, 지층의 공연장을 높게 끌어올려 플라자가 플롯을 관통하는 형상<sup>19)</sup>을 하고 있는데 이는 플라자의 외부 공간 연장선상에 투명성을 이용한 경계공간을 통하여 내·외부 경계의 모호함<sup>20)</sup>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투명성의 확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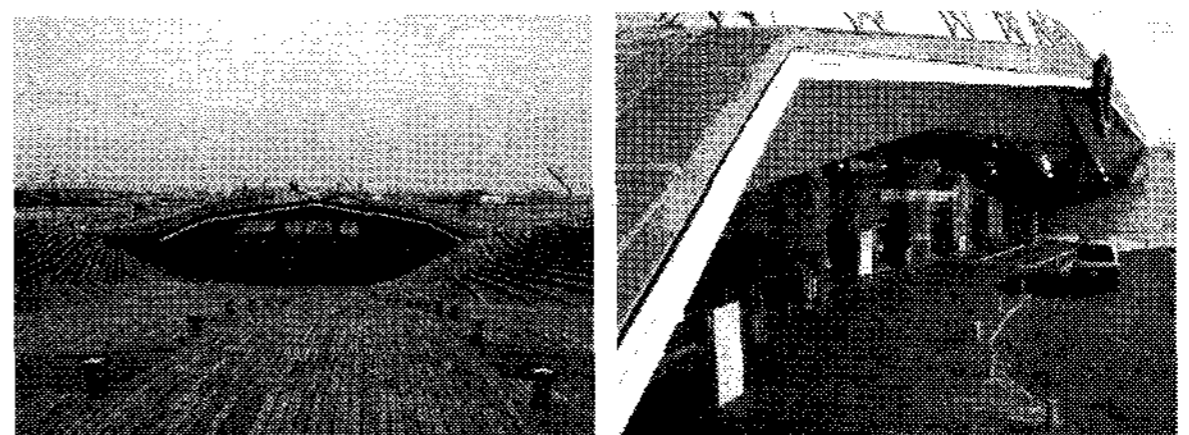
18)건축과 환경, 통권 264호, 2006. 8, p.44

19)건축문화, 통권 313호, 2007. 6, p.55

20)발터 벤야민(Walter Benjamne)의 사후에 발간 된 '아케이드 프로젝트'에서 19세기 초에 등장한 파사쥬(Passage)를 통해서 내·외부 경계의 모호함을 설명한다. 파사쥬는 건물과 가로의 중간적 존재로 근대 이후

내·외부의 상호관입을 통한 가시적 해방감과 확장성, 동시성 등이 부여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투명성은 플라자 이용자들의 시선 범위를 한정짓지 않고 여러 시점을 교차시켜 모호한 경계 공간을 형성시키는데 일조를 한다. 이렇게 모호한 경계공간의 형성은 주체와 객체의 명확한 구분을 어렵게 만들며 소통과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영역 만들어내는데 모호한 경계 공간이 가지는 다양한 잠재성은 사용자의 인식을 통하여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재해석 하게 해주는 타자성 드러내기의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경계란 어떤 것이 끝나는 지점인 동시에 다른 어떤 것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물리적인 경계로서는 한계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정할 수 있겠으나 인식적 경계로서는 그 한계를 명확히 정할 수 없는 불확정적인 특성을 가진다. 변화 된 공간체험을 통한 안과 밖의 인식적 경계의 재설정은 가시적인 안과 밖의 경계면에서 찾을 수 없는 뚜렷한 경계가 없는 '주체-타자'의 의미로 재해석하게 된다. 요코하마 국제 여객선 터미널의 내·외부 경계공간에서도 비슷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림 8> Yokohama 국제 여객선터미널,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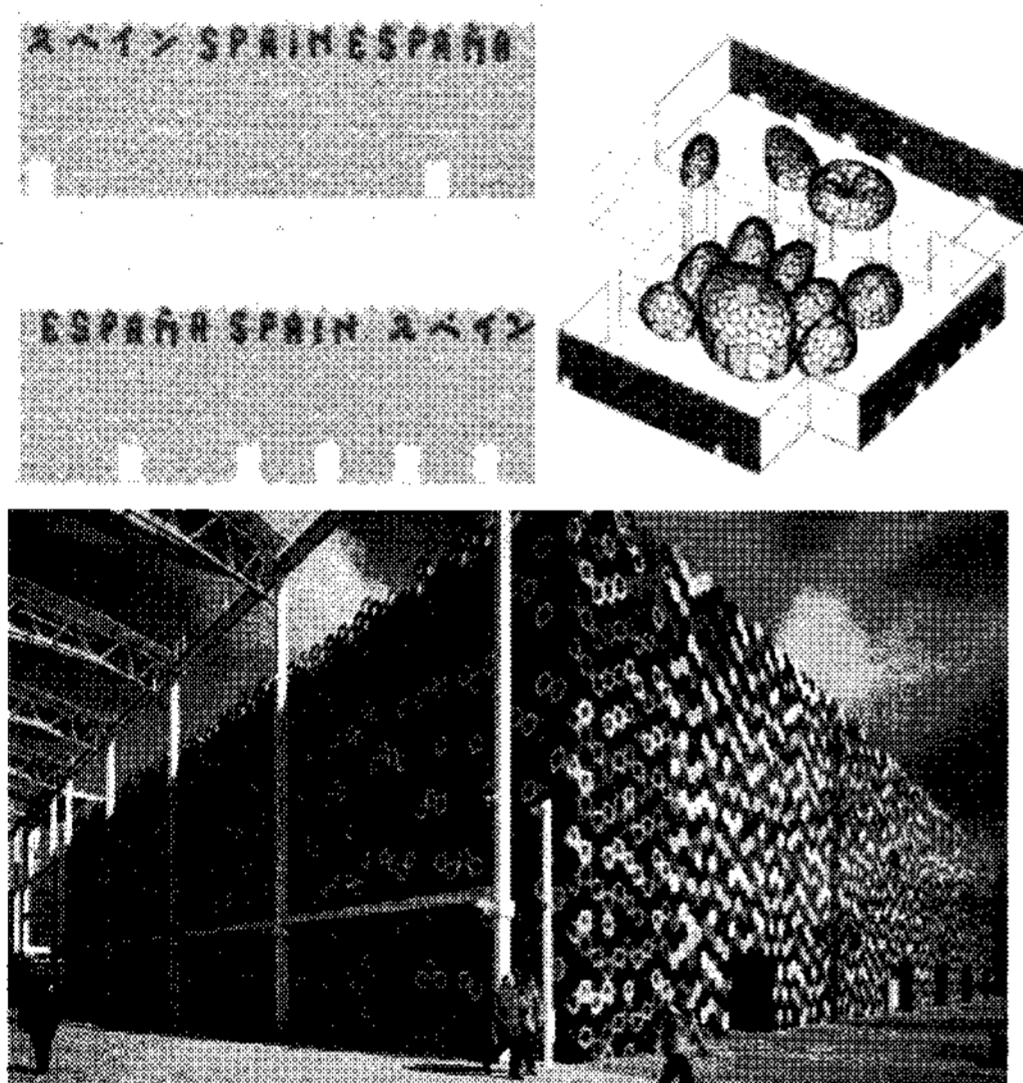
요코하마 여객선 터미널 이용자와 도심 속 산책로로 이용하는 사람들 모두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계공간을 맞는다. 건물의 표피는 더 이상 내·외부를 나누는 물리적 경계가 아니라 내·외부가 동시에 경험되는 경계이기 때문인데,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표피를 중심으로 형성 된 영역은 내·외부의 경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없는 모호한 경계가 되며 이렇게 모호한 경계는 관찰자에게 어디서부터가 내부인지 외부인지, 어디서부터가 바닥인지 벽인지 내·외부와 바닥과 벽 그리고 천장 등을 재해석하거나 재정리해야 한다. 결국 건물의 내부와 외부는 경계공간이라는 '타자'의 개입으로 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며 이때 일어나는 소통은 고정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게 된다.<sup>21)</sup> 이것이 모호한 경계 공간이 가지는 인식적 잠재성을 통한 타자의 개입에 따른 관계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내부와 외부가 종속적인 관계를 벗어나서 대등한 관계를 맺게 되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 상호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부와 외부의 이중적 성격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사용되며 파사쥬를 통해 끊임없이 시선의 교차와 소통을 경험하게 된다.

21)최순섭 외, 현대건축의 타자적 경계공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6.4, pp.182-183

또한 현대 건축에서의 경계공간은 사람들의 시각에 의해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시각적 경계 보다 관찰자와 대상 사이에서 발생하는 인식에 따른 인식적 경계에 의해 형성되며 이것은 내·외부 사이에 인식에 의한 경계를 만들어 각 내부와 외부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각적 경계에 따른 내·외부의 분할 구도에서 벗어나 관찰자의 인식에 의한 새로운 소통의 구도를 만들기 위함으로<sup>22)</sup> 해석되며 내부와 외부의 성격을 규정짓는 정체성의 형성과정과 그것을 드러내는 데 있어 타자적 존재를 인정 또는 초월함으로써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Spanish Pavillion Expo 2005, Japan



<그림 9> Spanish Pavillion Expo 2005,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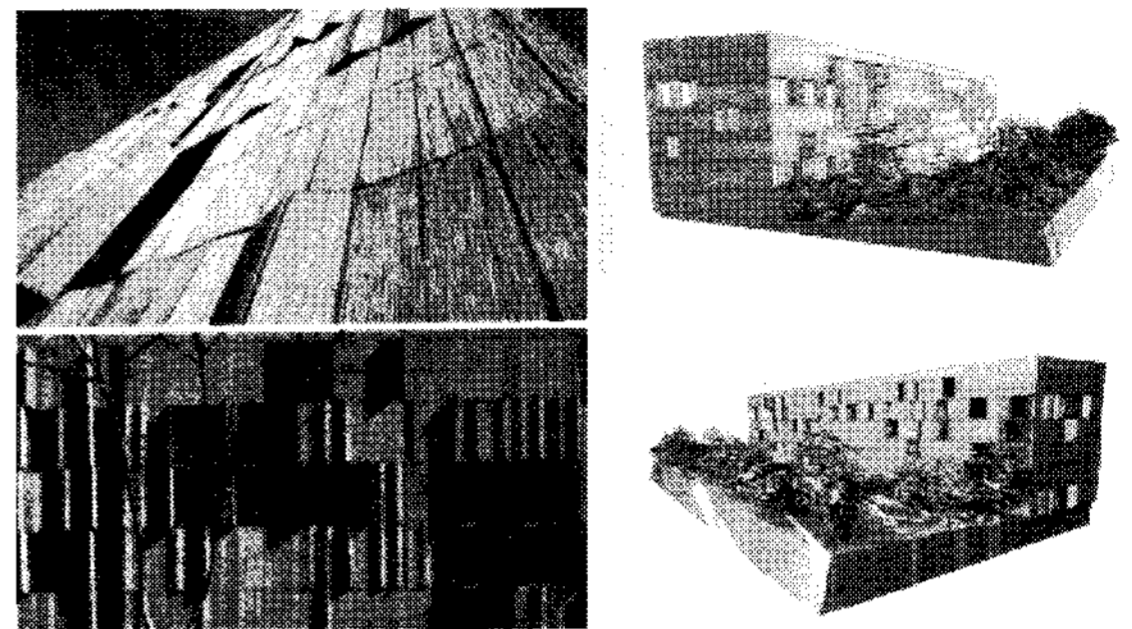
일본에 스페인의 문화와 역사를 전시하기 위한 파빌리온으로 스페인의 특징적 건축요소들 중 안뜰타입, 교회와 성당, 구조적 요소로서 아치와 둥근 천장 그리고 격자외피, 트레이서리(tracery) 등의 요소를 선별하여 복합적으로 반영한 프로젝트이다. 스페인을 상징하는 와인, 장미, 투우(혈액), 태양, 모래, 스페인국기 등에서 추출한 6가지 컬러로 코드화 된 6각형 그리드의 불규칙한 배열로 외피가 형성되어 있는데, 외피의 윗부분에 스페인을 일컫는 규칙적인 배열의 텍스트가 읽혀지는 순간 6각형 그리드의 불규칙한 배열은 해체되고 규칙적 배열의 텍스트로 재해석 하려는 시도가 생겨난다.

이때, 반복적으로 사용된 불규칙한 도자패턴 속에서 코드화된 질서체계를 이용하여 만들어낸 일련의 텍스트는 외피 전체 패턴으로 볼 때 조화 보다는 절대적 외재성을 가지고 읽혀지며 기존의 불규칙한 패턴이 가지는 외피의 의미는 해체되고 새로운 인식적 경계로써 외피를 생성시키며 각각의 존재를 타자화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2)최순섭 외, 현대건축의 타자적 경계공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6.4, p.181

(4) CARABANCHEL Social Housing, Spain, 2006

기존의 남·북 방향을 향한 부지 형상을 고려하여 모든 세대는 동·서 방향으로 이중의 향을 갖도록 계획된 주거건축물으로써 단위 세대들은 양편의 파사드를 연결하는 동시에 개실간의 구분 벽 사이에 어떠한 구조체도 없는 일정 길이의 일종의 '튜브'가 형성되었다.



<그림 10> CARABANCHEL Social Housing, Spain

이 테라스들은 폴딩 프레임(folding frames)에 설치된 파동형 천공 아연도금판으로 만들어진 '베일'로 싸여져 동서의 강렬한 일사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세대의 보안장치로 그리고 필요에 따라 양편의 정원을 향해 완전히 열릴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sup>23)</sup> 이때 외부에서 보았을 때 각 주호의 구분이 불가능한데 보편적 시각으로 형성 되어야 할 각 주호의 관습적 경계는 해체되고 폴딩 프레임의 개폐 여부에 따라 새로운 경계로 인식하려는 시도가 생겨나게 된다.

테라스의 입면에서 보여 지는 각 주호의 변화하는 경계<sup>24)</sup>가 고정된 내·외부의 관계에 개입하게 되면 고정적이고 대립적인 내·외부의 관계는 지속되지 않고 계속 변화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경계가 하나의 영역을 형성할 때 많은 변형이 시작되고 소통이 발생하고 새로운 스토리가 전개되며 이때, 기존의 주체와 객체가 갖는 고정적이고 관습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맺는 타자성이 드러나게 된다.

4. 결론

이상의 고찰을 통해서 타자성의 담론이 F.O.A 건축 공간 생성에 어떤 유형으로 드러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근대주의의 비판에서 출발하는 근대 이후는 이전과 다른 공간상의 가능성들을 여러 방식으로 모색하면서 다시 다양한 방향으로 확산되는

23)건축문화, 통권 313호, 2007. 6, p.70

24)최순섭 외, 현대건축의 타자적 경계공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6.4, '변화하는 경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모호한 경계와 유사하지만 형식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모호한 경계는 사람들을 그 경계의 영역으로 편입시켜 모호한 경계를 인식하게 하지만 변화하는 경계는 시간이나 자연 또는 도시의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편입함으로써 그 경계가 불확정적인 상태가 된다'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근대주의 공간의 지배적인 구조가 동일성이었다면, 근대 이후의 공간을 특징짓는 핵심어는 차이와 이질성이 될 것이며 그것이 곧 '타자성(otherness)'의 도입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근대주의와 변별되는 새로움의 추구이며, 근대 공간이 억압해온 '다른(other)' 공간의 생성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모더니티의 제약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하려는 시도<sup>25)</sup>로서 동시대 새로운 건축을 받아들이는 유연한 틀의 한 가지가 될 것이다.

본 연구사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F.O.A 건축에 있어서 타자성의 담론은 다음과 같은 건축 공간 생성원리를 통해 재유형화 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 지형학적 폴딩을 이용한 랜드스케이프 건축 개념의 도입으로 경관과 건축의 주체를 허물고 재유형화 시키는 것이고 둘째, 내외부의 시각적 물리적 경계인 외피의 의미를 해체시키고 재해석 하게 하는 것이며, 셋째, 안과 밖의 경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인식적 경계를 해체시키고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재설정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F.O.A 건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재유형화 현상은 기존의 주체와 객체가 가지는 관습적이고 고정적 관계에서 벗어나 동일 시간 선상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다양한 잠재성의 내포로 재해석되는 모호한 경계 공간을 통하여 타자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1. 엠마누엘 레비나스-타자를 향한 욕망, 콜린데이비스 저, 김성호 역, 다산글방, 2001
2. 옥유정·이동언, 타자성 극복을 위한 건축 리노베이션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6.10
3. 시간과 타자, 엠마누엘 레비나스 저, 강영안 역, 문예출판사, 1996
4. 타자의 타자성과 그 담론적 전략들, 전병철 외,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4
5. G. Deleuze, 감각의논리-Logique du sens, paris: Ed. de Minuit, 1969,
6. Special Architect F.O.A, 자료제공F.O.A, 건축문화 2007. 10
7. 건축과 환경, 통권 264, 2006. 8
8. 옥광교, 랜드스케이프 건축에 있어서 판의 조작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논, 2003
9. 윤갑근·김기완, 랜드스케이프 건축개념의 재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7. 4
10. 건축과 환경, 통권 264호, 2006. 8
11. 이정우, 접힘과 펼쳐짐-라이프니츠와 현대과학, 거름, 2000
12. Notes for a Topographic Survey, Rem Koolhaas, EL Croquis, 53+79, 1998.
13. 배우영, 랜드스케이프 건축에 나타난 경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논, 2004
14. 유정호·조한, 질 들뢰즈의 '생성 혹은 되기' 개념을 통한 현대건축의 경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7.10
15. 최순섭 외, 현대건축의 타자적 경계공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6.4
16. 건축문화, 통권 313호, 2007. 6

17. 강혁, 근대주의 이후의 건축 공간의 변모, 한국건축역사학회 논문집, 2007.4
18. 웹사이트 <http://www.f-o-a.net>

<접수 : 2008. 4. 30>

25)강혁, 근대주의 이후의 건축 공간의 변모, 한국건축역사학회 논문집, 2007.4, p.33